



즉시 배포용: 1/17/2020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전기 자동차를 위한 "메이크 레디(MAKE READY)" 프로그램 발표

유틸리티 지원을 통해 전기 자동차 충전소 개발 가속화

충전소는 26억 달러 이상의 소비자 순 이익 창출

충전소에 대한 접근성이 늘어나 전기차의 매력 배가

*주정부는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 프로그램(Drive Clean Rebate Program)에 따라 이미
뉴욕 주민에 대한 20,000건 이상의 전기차 리베이트를 승인*

새로운 프로그램이 주정부의 교통 전기화 및 청정 에너지 목표를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가 책임감 있는 전기 자동차 충전소 배치를 장려하기 위해 주 전체 유틸리티 지원 "메이크 레디(Make-Ready)" 프로그램의 설립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 이니셔티브에 따라 뉴욕 주민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20,000 건 이상의 리베이트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한 판매자로부터 새로운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최대 2,000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20 시정 방침(State of State) 연설에서 전기 자동차(EV) 소유를 더욱 장려하겠다는 뉴욕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지사는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에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전기 자동차(EV)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기 자동차(EV) 충전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유틸리티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비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소유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기후 변화 대응 및 청정 에너지 경제 성장 목적의 전국을 선도하는 뉴욕의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메이크 레디(Make Ready) 이니셔티브는 공공 접근이 가능한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뉴욕주 유틸리티에 지시를 내려,

일 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주 바깥으로 에너지 비용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장하는 한편, 더 많은 뉴욕 주민 전기 자동차를 선택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에 뉴욕주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전기 자동차(EV)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뉴욕에서의 전기 자동차(EV) 배포를 지원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유틸리티의 전문성과 고유한 위치를 활용하여 제로 배출 차량 채택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이미 전기 자동차(EV) 충전의 주거용 사용 시간, 공공 고속 직접 충전소 설치 비용 절감을 위한 플러그당 연간 인센티브 등 제로 배출 시장을 장려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많은 전기 자동차(EV) 시연 및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유틸리티는 폴아웃 전기 자동차(EV)에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메이크 레디(Make-Ready)" 프로그램은 2025년 말까지 850,000대의 제로 배출 차량을 배치하려는 뉴욕의 목표와 함께 해당 년도까지 운영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 자동차(EV) 충전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 퍼센트를 지원하여 개발자의 전기 자동차(EV) 경제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유틸리티에 전기 자동차(EV) 충전 시나리오를 연간 자본 계획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충전 인프라의 신중한 배치를 장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따라 충전 인프라가 신속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개발될 경우, 뉴욕 주민은 26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누리고 뉴욕주의 교통 전기화 및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의 신중한 배치를 통해 설치 비용 절감, 사이트 호스트 수용 개선, 운전자 사용 극대화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공급 장비 및 인프라 현장 작업에 적합한 위치를 파악하고 개발자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는 비용 절감 기회를 사전에 교육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EV) 충전 인프라 예상에는 전기 유틸리티가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투자된 고객의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며 빈곤한 지역사회의 주민을 비롯한 모든 유틸리티 고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충전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유틸리티에 일반 적합성 기준을 수립하여 잠재적인 공공 충전소 부지를 특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기 자동차(EV) 가격이 하락하고 더 많은 전기 자동차(EV)가 시장에 출시됨에 따라, 대기 오염에 의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은 환경 정의 지역사회와 농촌 지역에서 더 많은 충전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량이 많은 도로 및 고속도로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으며, 차량 소유율이 낮은 지역사회는 도로에서 더 많은 전기 자동차가 운행된다면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에서는 버스를 비롯한 중대형 차량의 전기화 지원을 위해 많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 자동차(EV)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며 빈곤한 지역의 공기 질을 개선합니다.

"메이크 레디(Make-Ready)" 프로그램 시행 첫 해에 개발된 고속 전기 자동차(EV) 충전소는 업스테이트 뉴욕에 위치한 150 킬로와트 규모의 대형 충전소를 제외한 모든 지역 및 부지 배치에서 추가 재정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개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접근 가능한 인프라가 범위 불안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 보고서는 업스테이트 뉴욕의 각 지역에 지역마다 네 곳 이상의 고속 충전소 설치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게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이 관리하는 [이볼브 뉴욕\(EVolve NY\)](#) 이니셔티브는 주요 교통 통행로를 따라 공공 고속 충전소를 확장하고 주요 도시와 공항에 새로운 충전 허브를 만들며, 주민들에게 전기 자동차로 전향하도록 장려하는 전기 자동차 친화적인 모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추가 인프라는 뉴욕주의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 이니셔티브 목표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7,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뉴욕에서 깨끗하고 오염이 적은 자동차의 사용을 장려하고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고객의 자동차 구매 비용 감소 등을 지원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완전 전기 자동차 또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에 최대 2,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총 5,500만 달러 지원하기로 기획되었습니다. 남아있는 1,500만 달러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고 뉴욕주 전 지역에 더 많은 충전소 설치, 새로운 전기 자동차 제작기술의 개발 및 시연 등 많은 혜택과 뉴욕의 도로에서 더 많은 전기 자동차들이 다니게 하려는 노력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행 이후, 이 이니셔티브를 운영하는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은 45 개 유형의 자동차를 구매한 뉴욕 주민이 청구한 2,900만 달러가 넘는 리베이트를 승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새 전기차를 판매한 대부분 사람이 1,100달러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뉴욕주 각 카운티의 뉴욕 주민들은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리베이트 중 약 33 퍼센트는 롱아일랜드의 소비자들이 청구했으며 그 다음은 미드 허드슨 벨리의 운전자들이 청구했습니다. 지역별 리베이트 청구의 전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 지역	총 청구 건수*	총 건수 대비 %
롱아일랜드	6,866	33%
미드 허드슨	3,656	17%
뉴욕시	2,458	12%

주도 지역	2,129	10%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2,085	10%
뉴욕주 서부 지역	1,426	7%
뉴욕주 중부 지역	891	4%
서던 티어	781	4%
모호크 밸리	423	2%
노스 컨트리	259	1%
총	20,974	

*1/10/20까지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의 **John B. Rhodes**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과 미래의 운송 시스템에는 전기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기 고객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익을 가져오며, Cuomo 주지사의 청정 에너지 및 청정 운송 전략을 가속화하는 스마트하고 미래지향적인 유틸리티 투자를 제안합니다."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YSERDA)의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Alicia Bart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이크 레디 프로그램(Make Ready Program)은 뉴욕 주민들에게 주 전역에서 더욱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사용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탄소 발자국을 완전히 없애려는 Cuomo 주지사의 비전에 따라 그들이 전기 자동차로 자신있게 바꾸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미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 프로그램에 따라 20,000 건 이상의 리베이트를 승인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깨끗한 지역사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저렴한 청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NYPA)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Gil C. Quini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에 더 많은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뉴욕주에서 전기 자동차 선택을 성공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메이크 레디 프로그램(Make Ready Program)은 유틸리티와 개발자 간의 중요한 협업을 촉진하여 더 많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뉴욕주는 기존 및 잠재적인 전기 자동차(EV) 운전자에게 편리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뉴욕 주민들은 비즈니스 및 개인 여행 모두에서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메이크 레디(Make Ready) 프로그램은 2022년 말까지 모든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지역에 10개 이상의 급속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뉴욕주 전력청(NYPA)에 지시한 주지사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최근 시정 방침(State-of-the-State) 발표 내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지사의 전기 자동차(EV) 정책에 따라 뉴욕주 전력청(NYPA)은 뉴욕주 스루웨이(Thruway)의 모든 여행 광장에 2024년 말까지 충전소를 설치하고 향후 5년 동안 최소 800대의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권고 사항은 또한 Cuomo 주지사의 차지 뉴욕(Charge NY) 이니셔티브를 통한 뉴욕의 성공적인 전기 자동차(EV) 확장 노력에 기반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18년 말까지 30,000 대의 전기 자동차(EV)와 3,000 곳의 전기 자동차(EV)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2013년 이래 뉴욕에서 45,000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가 판매되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기타 48개의 주보다 높습니다. 뉴욕은 같은 기간 동안 약 4,000 곳의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뉴욕은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 (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의 채택에 따라 야심찬 기후 변화 완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에 따라 뉴욕주 전체의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고, 2050년까지 모든 인위적 자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5 퍼센트 이상 감축,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40 퍼센트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은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을 활용할 수 있는 완화 조치로서 교통 전기화를 포함해 대규모 배기가스 감축 및 완화 조치를 요구하며, 이는 기후 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뉴욕의 교통 부문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뉴욕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